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

황혜진*

目次

1. 서론
2.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
3. <장화홍련전>의 경우: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환상적 변형과 극복
4. <장화, 홍련>의 경우: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고착으로 인한 불행
5. 결론: 같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응답

1. 서론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¹⁾이라고 정의되며, 여기에는 전통에 대한 개인의 인식,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²⁾ 박인기는 위와 같은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규정이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에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 경인교대 강사

1)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2003.

2) A. C. Purves, L. Papa, S. Jordan (eds.),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 vol 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4.

국어교육적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재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공시적인 양태를 수평적 범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시간의 검증은 받아 가치 있는 것으로 전수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앎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기호적 상징들에 대한 앎은 모두 문화적 문식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 두 범주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두 범주를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가르치게 되면,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을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전수받고 암기하는 데 급급하게 되며,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역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전통이란 현재의 관심에 따라 재구성되며 심지어는 발명되기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과 현재의 문화도 전통이 마련해준 지평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며 그 새로움도 전통을 척도로 규정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문화의 두 양태는 서로를 되비치고 구성하는 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서로 교섭하는 교집합적 부분이 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파악하여, 그 위치에 놓인, 고전의 현대적 변용물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전통문화의 요체는 유산으로 전해내려 오는 가시화된 실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현재와 소통하는 양상

3) 박인기, 앞의 글. 박인기의 글에서 수평적, 수직적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문화 연구에 도입한 윌리엄스는 문화에 대한 논의를 세 가지 범주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범주에서 문화는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상태를 지시한다. 둘째 범주에서 문화는 '문서화된 기록들', 즉 기록된 텍스트와 실천행위로 이루어진 실체를 가리킨다. 셋째 범주에서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R.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참조. 수직적 문화는 실체로서 전승되는 문화유산과 그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에 가까우며, 셋째 관점으로부터 현재의 대중문화가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수평적 문화는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된다.

은 물음과 응답이라는 대화적 구조를 갖는다. <심청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심청전>은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 봉사가 후대로 올수록 회화화되는 이본 형성의 과정은 효라는 인륜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비속한 심 봉사의 표상을 매개로 제시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맹목적인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⁴⁾ 이렇게 <심청전>의 이본들은 심청 이야기가 문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고민하면서 나름의 답변을 내어놓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때, <심청전>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실체화된 가치로서 효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이 제기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현대의 문제로서, 자기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 자체의 이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현대인에게도 의미 있는 문제로 설정되고, 과거의 작품이 제시한 답변이 현대의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로 다가올 때, 과거의 문화유산은 비로소 학습자와 대화적 관계를 갖는 고전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다양한 매체의 텍스트들은 그 자체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고전문학을 해석한 현대적 관점으로서, 혹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한 실현으로서 학습자와 고전문학 작품의 대화를 촉진할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교육적인 주목을 요한다. 즉, 고전의 현대적 변용물들은 고전을 고전답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로서 문학교육의 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장화, 홍련>은 그 제목처럼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상상의 원천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개봉된 지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열피게 진행될 정도로 다층적인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영화이다. 기존의 이 영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고전소설과 영

4) 정운채, 「<심청전>의 구조적 특성과 심청의 효성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 이상익 외, 『고전 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줄고,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채만식의 <沈봉사>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화와의 관계는 ‘고전과 무관함’, ‘고전의 재해석’, ‘고전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었다.⁵⁾ 그렇지만 이 연구가 <장화, 홍련> 평론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느냐, 혹은 평론자들이 가진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러한 영화 비평에 대한 메타 비평은 조현설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현설은 이본연구의 관점으로 고전소설의 영상 변용물을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전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의 관계에 대해 논한 바 있다.⁶⁾

그러나 조현설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화 비평에 대한 메타 비평이 행해졌을 뿐, 영화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장화홍련전>에 대한 새로운 읽기가 시도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 그의 연구는 고전소설에 대해 ‘무지한’ 영화인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화비평가에게 ‘원전의 정신’을 이해하는 일차적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청한다.⁷⁾ 이에 비해 본고는 영화나 영화를 둘러싼 담론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태도를 갖는다.

5) ‘고전과 무관함’에 묶을 수 있는 사례로, <장화, 홍련>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장화홍련전> 영화와는 달리 원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영화라는 논의나 유운성, 「감독의 장르적 상상력, <장화, 홍련>」, 『시네 21』, 2003.6.10.), “이 영화는 침대에 죽은 동물이 나오는 것만 빼면 전래소설 <장화홍련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반칙이다.”(이효인, 「<장화, 홍련> 전래동화와는 아무 상관 없네…반칙이다」, 『시네 21』, 2003.7.3.)라는 비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의 비평에서는, “계모의 악역을 수미의 사이코드라마로, 송사 해결은 정신분석으로, 환생 설화를 기억의 회귀로 전복”(정승훈, 「공포의 형이 하학을 넘진 못했지만 눈을 땔 수 없는 <장화, 홍련>」, 『시네 21』, 2003.7.3.)이라고 설명되거나, 고전소설의 선악 구도를 “어머니 부재로 인한 여성의 회생과 아버지의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남성적 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였다고 논하였다.(정재형, 「상상력, 환상, 기억 그리고 일탈의 공간정치」, 『문화예술』, 2003.8.) 한편, ‘고전소설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란 관점에서 이 영화는 ‘여자들끼리 싸우게 놔두라. 남자는 죄가 없다’라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 비판되기도 하였다.(심영설, 「수미의 내면 대신 다리에 탐닉하는 <장화, 홍련>」, 『시네 21』, 2003.7.10.)

6) 조현설, 「고소설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 본 고소설 연구의 과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7) 조현설, 앞의 논문, 64면.

즉, 감독을 비롯한 영화 생산자들이 만든 고전의 변용물에서 수용자가 발견한 의미로 고전을 되비칠 때, 오히려 고전을 이해하는 해석적 지평이 확장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자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고전 자체의 의미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연구에서는 고전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이 ‘가족간의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과 갈등’이라는 보편적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파악하며⁸⁾,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어떠한 답변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심리학자인 베텔하임은 가족간의 갈등이 서사적으로(특히 민담에 있어서) 어떻게 표상되는지에 대해서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라는 개념으로 매력적인 분석을 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두 장화, 홍련 이야기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고, 어떤 해결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화홍련전>의 의미나 주제 관련 논의에서 심리학의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먼저 <장화홍련전>을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라는 틀로 검토한 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파악되는 영화 <장화, 홍련>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답변을 내리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2.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

오이디푸스와 그 가족이 등장하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를 갖고 있다.

자신이 아들에게 죽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테베의 라이오스 왕은 오이디푸

8) 이러한 해석의 관점은 영화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이 영화에 대한 쟁점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근친간의 과도한 애정’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는냐와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영화를 둘러싼 ‘근친간의 과도한 애정’과 관련된 해석 논쟁이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 성과는 감독을 포함한 영화 생산자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 수용자의 반응이 소통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스가 탄생하자, 아이의 복사빠를 창으로 찌르고 두 다리를 묶었다. 그는 양치는 목동에게 어린 아들을 데려가 들판에서 죽게 버려두라고 명하였으나 목동은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넘겨, 결국 오이디푸스는 다른 나라 왕의 아들로 길러지게 된다.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델피의 신탁을 듣자, 양부모를 친부모라 여겼던 오이디푸스는 그런 과오를 막으려고 방랑의 길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오이디푸스는 교차로에서 마주친 라이오스를 죽이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계속 방황을 하다 테베로 와서 스팅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고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다. 또 그 보상으로 오이디푸스는 과부가 된 왕비인 요카스타와 결혼한다. 이렇게 아들은 왕과 남편이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진실이 점점 밝혀지자 요카스타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했던 일을 알지 못한 처벌로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다.

오이디푸스와 요카스타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니세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딸 안티고네만이 곁에 남아 아버지를 돌봤다. 이후 남은 쌍둥이 아들은 내분의 과정에서 서로를 죽이게 된다. 안티고네는 크레온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폴리니세스를 땅에 묻어주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크레온 왕에게는 안티고네를 사랑하는 하에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안티고네가 죽기 전에 그녀를 살려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청원한 바 있었다. 그러나 크레온 왕은 아들의 청원을 물리치고 안티고네를 죽이고 말았다. 안티고네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한 하에몬은 아버지를 죽이려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자살한다. 그리고 하에몬의 어머니이자 크레온의 부인도 아들이 죽자 자살한다.⁹⁾

프로이트는 이 이야기 중 비극적 파국을 맞는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부분, 즉, 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남근기(The Phallic Stage)’에 해당하는 개인의 성적 발달 과정의 특징적 현상인 ‘오이디푸

9)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조우현 외 역, 『희랍비극1』, 현암사, 1994.

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설명하였다.¹⁰⁾ 이는 성(性)이 다른 부모에 대한 성적인 추구하고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배척 감정이다. 이와 같은 감정은 자신보다 더 강한 부모로 인해 대부분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는데,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대감 대신 동일시를 통하여 경쟁심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어느 정도 수정, 해결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는 성 역할 규범을 배우고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초자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¹¹⁾

베텔하임은 이 신화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적 집착을 발견하면서 이 신화의 메시지는 과도한 근친애가 결국 비극적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임을 밝혔다. 베텔하임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프로이트와 조금씩 다르다. 첫째, 베텔하임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아동의 성장 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문제로 확장하여 이해한다. 베텔하임은 프로이트의 견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이 신화가 “부모가 자기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리고 부모가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데에 만족할 수 없을 때 가장 처절한 비극으로 귀결”¹²⁾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오스는 자식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온은 자식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식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

10) 프로이트는 이 개념을 활용했으나, 「남자들의 대상 선택 중 특이한 한 유형」이란 글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S. 프로이트, 「남자들의 대상 선택 중 특이한 한 유형」,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4, 213면 역자주.) 여기의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어머니를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자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경쟁자로 생각하여 다시금 증오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S. 프로이트, 앞의 책, 213면.)

1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에 대해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에 대한 대상 리비도 집중은 동일시로 바뀐다. 아버지나 부모의 권위는 자아에 유입되고, 여기서 초자아의 핵심이 형성된다. 이 초자아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넘겨받아 근친상간을 금지시키고, 부모를 향한 리비도 집중으로부터 자아를 지켜준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속하는 리비도 경향의 일부는 동일시로 인해 약해지고 고상해지며, 일부는 억제되어 애정으로 바뀐다.” (S.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앞의 책, 296면.)

12) B.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2』, 김옥순, 주옥 역, 시공주니어, 1998.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여성 부모에게도 해당한다. 요카스타 역시 아들을 자식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둘째, 베텔하임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남근의 소유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제가 남자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보았다.¹³⁾ 이에 비해 베텔하임은 <백설 공주>의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소녀에게는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¹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어느 한 쪽에서라도 집착이 되고, 과도해 질 때 문제는 발생한다. 그 예로 오이디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안티고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장님이 된 아버지 곁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던 안티고네는 그런 사랑을 오빠에게도 쏟았기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만약 안티고네가 자기 여동생 이스메네처럼 자신의 부모나 형제 어느 쪽에도 깊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거나 오빠로 인해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며, 하에몬과 행복한 결합을 이루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13) “한 부모에게만 사랑을 보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의 부모는 경쟁자로 증오하는 운명적인 결합을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S. 프로이트, 「여성의 성적」, 앞의 책, 342면.) 그러나 한편,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거세 위협으로 이어져 초자아 형성의 핵심이 되는 과정은 남자 아이의 경우인데, 이런 발달이 여자 아이의 경우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주제는 매우 모호해지고 겨리가 생긴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초자아, 잠복기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남근의 조직화와 거세 콤플렉스도 적용시킬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한 바도 있기는 하다.(S.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앞의 책, 297면.) 그의 논의를 따르자면, 여자 아이들은 이미 거세를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남근 선망을 버리고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러한 의도에서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S. 프로이트,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앞의 책, 312면.) 이렇게 프로이트는 여성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를 남근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였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14) B. 베텔하임, 앞의 책, 332면.

근친애적 관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파멸하고 만 것이다.

이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의 성장 과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프로이트나 베텔하임에게 공통적이다. 프로이트는 사춘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는 심리적 성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 극복에 대해 “부모의 권위에서 이탈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대립을 가능케 하는 과정으로서, 문명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¹⁵⁾하다는 의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베텔하임도 이 문제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어린이는 욕망의 힘이 자신의 전체 인성을 압도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두 논자는 오이디푸스적인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프로이트는 거세 위협의 주체인 아버지를 자아에 유입하여 형성된 초자아에 의한 억압에 의해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이 제어될 수 있으며, 자아가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임무를 잘 해내지 못하면 억압은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다가 병으로 나타난다고 위협적으로 설명한다.¹⁷⁾ 한편, 베텔하임은 무의식을 억압하고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의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의식의 층으로 떠오르도록 허용되고 상상 속에서도라도 작동을 할 수 있으면, 무의식이 자신에게나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무의식적 욕망이 긍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¹⁸⁾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베텔하임은 어린이가 겪는 내면적 갈등을 환상적으로 표상하여 자기도 행복한 결말을 얻기 위해 성숙에 필요한 성장의 경험을 견뎌내도록 용기를 주는 옛이야기[민담]의 효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논의의 주요 개념으로 활용될 ‘오이디푸스적 문제’는 아동뿐만

15) S.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3. 사춘기의 변화들」, 앞의 책, 131면.

16) B. 베텔하임, 앞의 책, 92면.

17) S.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앞의 책, 297면.

18) B. 베텔하임, 앞의 책, 18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이 성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 혹은 해소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대부분의 민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환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담에 있어서 이 문제의 적용 가능성은 이미 베텔하임이 <백설 공주>를 이 문제틀로 분석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실현되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백설 공주>가 오이디푸스적인 문제와 관련된 무의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설명한 베텔하임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백설 공주의 계모는 실은 친모의 환상적 변형이며, 여자 어린이는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머니를 질투한다. 계모는 자아도취에 빠져 백설 공주의 아름다움을 시기한다. 백설 공주는 아버지에게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백설 공주는 아버지와 떨어져 난쟁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동안 난쟁이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게 되면서 청년기로 이동할 힘을 기른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도 역시 갈등은 있다. 백설 공주의 계모는 끊임없이 레이스 띠(코르셋)이나 빗으로 유혹하며 성적으로 매력 있게 되고 싶어하는 백설 공주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욕망은 초기의 미성숙한 청년기 상태에 있는 백설 공주에게 ‘독약’이 되어 백설 공주는 독이 묻은 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다. 여기서 사과는 여성의 성숙한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는데, 아직 덜 성숙한 백설 공주는 이 사과를 먹기에 너무 일렀다. 그래서 백설 공주는 관 속에서 깊은 잠을 자면서 성숙의 마지막 단계인 ‘휴식과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 시간을 견딘 결과, 백설 공주는 성숙해진 상태에서 왕자로 표상되는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¹⁹⁾ 이렇게 본다면, 익히 알려진 <백설 공주>는 한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의 근친애적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질투를 극복하고,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면의 투쟁을 그린 심리 드라마가 되는 것이다.

19) B. 베텔하임, 앞의 책, 327-349면 참조.

이렇게 서구의 대표적인 계모형 민담인 <백설 공주>를, 오이디푸스적 문제를 환상적인 변형을 통해 드러내고 그 문제를 마술과도 같이 해결하는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계모형 서사의 한국적 변용인 <장화홍련전>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장화홍련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장화홍련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며 해결하고 있는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하겠다.

3. <장화홍련전>의 경우

: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환상적 변형과 극복

<장화홍련전>은 안자산²⁰⁾에 의해 검토된 후부터 연구사가 이어져²¹⁾ 주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 논의들은 이 작품의 갈등이 어떤 원인에서 초래되었는지에 주목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를 해석하였다. 계모와 전혀 자식간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중심으로 그간의 작품의 주제나 의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장의 무능함

① 가장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편애와 사려 없는 행동, 소심과 나약, 우둔과 무능이 가정 비극을 초래한 원인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유교문화의 부정적 변질인 양반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② 가장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20) 安廓, 『조선문학사』, 韓一書店, 1922.

21) <장화홍련전>의 전반적인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사」(우쾌제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및 이헌홍, 「<장화홍련전>」(『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585-599면) 참조할 것.

22)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1』,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4.

가장의 권위와 봉건적 가족윤리의 강조만으로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잠재우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²³⁾

2) 가장권의 강력함

① 계모의 악행은 가정 내에서 가장이 묵인했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했고, 가장권의 강화라는 현상은 전실 자식에게도 내면화되고 있기에, 장화와 흥련은 직접 계모를 징치하지 못했으므로 이 작품은 가장권이 강화되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²⁴⁾

② 조선 후기 가부장제의 경직화와 그로 인해 빚어진 위기의 책임을 계모의 본성적 결함으로 환원시켜 은폐하고 있는 이 작품은 남성지배에 습속화된 여성들의 공조 아래, 계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남성지배에 대한 신화적 믿음을 재생산하고 있다.²⁵⁾

③ 자식에게 죽음을 명하는 부당한 가부장적 권위나 기존 윤리 체제 하에서 자신의 원정을 관에 고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원귀라는 형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²⁶⁾

3) 전처-후처의 갈등의 변형

① 남편이 전실 자식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전처에 대한 그리움이기에 후처는 전실 자식을 전처와 동일시하여 전처에 대한 질투가 생겼다.²⁷⁾

② ‘계모-전처자식의 갈등’은 ‘전처-후처 갈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

23)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24)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8, 33-44면.

25)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26) 신영주, 「조선후기 송사소설 연구」, 상명대 박사 학위논문, 1996, 10-11면.

27) 신규원, 「계모형 소설연구」, 영남대 석사 학위논문, 1981.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부제(多婦制)에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인성의 결함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왜곡하여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면서, 첩이나 계모로부터 실제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던 여인들에게, 첩이나 계모가 징벌되는 결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위안의 기능을 하였다.²⁸⁾

4) 계모라는 콤플렉스

① 전처의 자식이 있는 집에 후처로 들어왔다는 콤플렉스로 인해 계모는 전처의 자식을 미워하게 되었다.²⁹⁾

② 계모는 한 가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시에 가족원이라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가정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³⁰⁾

5) 신·구 구성원간의 세 다름

① 계모의 등장은 가정의 주도권을 두고 전처 자식과 다투어야 하는 갈등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이 문제에 판관이 개입하는 것은 가정내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³¹⁾

6) 물질적 가치로의 경도

① 물질적 가치에 의해 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³²⁾

② 가정의 공동체적 성격이 쇠퇴하면서 이익사회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가족원간의 관계에서도 대두된 전환기의 산물이다.³³⁾

28) 이원수, 「가정소설 작중 세계의 시대적 변모」, 1997, 72-117면.

29) 정혜심, 「계모형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논문, 1989.

30)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31) 이헌홍, 앞의 논문, 597면.

32) 이승복, 앞의 논문.

33) 김재용, 앞의 책, 71-117면.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쉽게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계모’의 형상이 여성들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현실의 왜곡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전처의 자식이 있는 집안에 새로 들어와 가정의 주도권을 쥐려고 애쓰는 인간적 계모라는 관점을 수용하기는 힘들다. 또, 이 가정 비극이 초래된 원인을 가정의 문제로 돌리더라도, 이 가장을 무력한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작품은 양반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하고, 가부장제에 대한 옹호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적인 해석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해석 논의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하는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며, 수용자 개개인이 <장화홍련전>과 해석학적 대화를 하게 추동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장에 적극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장화홍련전>을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보면서 이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작품의 주제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한다.³⁴⁾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는 자암본(紫岩本) <薔花紅蓮傳>이다. 자암본은 경판본(京板本)으로서 간행 년도는 1899년도이다. 이 이본은 구활자본이 주로 참조하고 있는 모본(母本)으로 추정되며, 태몽 설화(胎夢說話), 추녀 설화(醜女說話), 계모 설화(繼母說話), 몽조 설화(夢兆說話), 호질 설화(虎叱說話), 청조 안내 설화(靑鳥案內說話), 아랑형 설화(阿娘型說話), 환생 설화(還生說話) 등 다양한 민담적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³⁵⁾ 이 연구에서는 민담이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기에 민담적인 요소가 가장 풍부한 이 이본을 자료로 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민담’의 전형적인 등장인물과 서사 구조를 따르면서 아버지와 딸, 어머니(또는 계모)와 딸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일으킬 수 있

34) 갈등하는 해석들이 오히려 학습자의 해석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기존의 해석 목록에 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연구의 교육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35) 전성탁, 앞의 논문, 33면.

는 문제를 중핵적인 갈등으로 표상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은 계자녀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악독한 계모와 너무나 착해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순순히 죽는 계자녀, 딸들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쏟기에 계모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버지 등의 인물이 등장하며, 악한 계모가 결국에는 징치되고 주인공들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서사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계모형 서사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산물만이 아니라 <신데렐라>나 <백설 공주>처럼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것이기에 보편적인 인간 심리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전제하고서 작품의 의미나 주제에 대해 논하였다.³⁶⁾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문제로 이 작품을 이해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려 한다.

계모형 민담에 있어서 ‘오이디푸스적인 문제’의 적용 가능성은 이미 이인경에 의해 모색된 바 있다. 이인경은 <손 없는 색시> 설화를 심층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계모(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의 억압을 극복한 주인공이 결국에 누명을 벗고, 계모를 징치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찾게된다는 설화의 내용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늘 부모의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던 ‘소녀’의 정신적 단계를 벗어나는 통과제의(通過祭儀)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이인경은 이러한 유의 설화에서 계모로 표상되는 악독한 어머니는 실제 계모가 아니라 생모의 환상적인 변용이라고 이해한 후, 계모의 질투로 인하여 부녀간의 과도한 애정 관계가 깨지고 독립적으로 반려자를 만나게 되기에, 악독한 계모는 오히려 ‘입사 안내자(入仕案内者)’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³⁷⁾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장화홍련전>은 유사한 서사의 골격을 가지며, 두 텍스트에는 공통

36) 앞서서 정리한 주제들 중 상당수가 <장화홍련전>에서 사회사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앞서 정리된 주제들 중 1), 2), 5), 6)은 모두 사회사적 의미와 관련된다. 3), 4)의 경우도 역사적 의미가 없을 뿐, 인간 관계의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다.

37) 이인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 『구비문학연구 13』,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적인 모티브가 발견된다.³⁸⁾ 이런 공통점으로 미루어 <손 없는 색시> 설화에 적용된 심층심리학의 관점이 <장화홍련전>에도 유효하리라 판단된다.

자암본 <장화홍련전>에서 계모의 형상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보면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이 소설에서 허씨의 용모는 기괴하다 할 정도로 못 생겼는데,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되지 않는다.³⁹⁾ 한편, 장화와 홍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는 없으나, 나이답지 않은 숙성함이 염려가 될 정도였다니 어린 나이에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흠뻑 풍겼음을 상상할 수 있다.⁴⁰⁾ 이렇게 대비되는, 계모와 계녀의 외모 묘사를, “객 관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발전하는 사람인 주인공의 관점에서 세상일을 조망”⁴¹⁾하다는 민담의 서술 태도와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⁴²⁾ 계모의 용모는 장

38)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의 서사 골격 중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부분은 계모가 전실딸을 내쫓기 위해 쥐를 이용하여 처녀가 낙태한 것처럼 꾸미는 전반부 내용이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 계모는 전실딸을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로부터 하야금 딸의 손을 잘라서 내쫓도록 만드는데 이 점이 <장화홍련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절단되었던 손이 재생된 후, 전실딸은 친정에 돌아와 계모를 징치하는데, 이처럼 계모가 징치되는 내용도 공통적이다. 또, 두 군(群)의 텍스트에는 공히 ‘처녀의 정절 모해’의 모티브가 담겨 있고, 전실딸을 모해한 주체는 계모이지만 쫓아내거나 죽이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아버지이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남자 형제라는 점도 공통적인 모티브이다.

39) “그 용모를 의논홀진디 낭협은 혼조히 남고 눈은 통방울 갖고 코는 질병 갖고 입은 머역기 아가리요 머리털은 듯희 술갖고 귀는 자가 난장이요 쇼리는 사랑의 쇼리요 허리는 두오름은 혼디 그 중의 공비팔이며 슈중다리의 쌍언형이를 겸호였고 그 슈둥이를 썰면 열수발이느 되고 엽기는 공명석 갓트니” (579면) (이하 인용은 자암본 (<薔花紅蓮傳> (경판 18장본: 자암신간, 1899년간,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취한다.)

40) “장화형제 점점 주라미 얼굴의 화려함과 직질의 괴묘호미 세상의 무쌍호고 호* 잉이 더욱 특출호니 좌슈부체 사랑호미 비홀 디 업는 중의 그 너무 숙성*을 미양 넘너호더니”(579면)

41) B. 베텔하임, 앞의 책, 332면.

42) <장화홍련전>의 서술 태도는 다른 가정소설에 비해서도 상당히 편파적이다. 서술자는 전폭적으로 장화, 홍련의 편에 서서 재현 대상을 그려내며, 사건을 서술한다. 계모인 허씨가 아들을 낳는 부분에서도 서술자는 “그것도 계집이라고”하며, 허씨의 지칭을 아예 “홍녀”라고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가정소설에서 후처나 첩의 형상이 대체로 굉장히 아름다우나, 다만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 반면, <장화홍련전>의 허씨는 외모와 성품이 모두 추악하게 그려진 것도 특징적이다.

화와 홍련의 관점에서 그려진 것이라고 할 때, 것처럼 추한 물골로 허씨가 그려진 것은 장화와 홍련이 허씨를 질투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장화, 홍련의 입장에서는 숙성한 아름다움을 갖춘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채 간 허씨가 마냥 미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씨의 용모가 추악하게 묘사되는 것은 허씨의 악한 심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장화, 홍련이 가진,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아버지와 장화, 홍련간의 관계는 허씨의 시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것으로 그려진다. 아버지인 배무용은 허씨와의 사이에 아들 삼 형제를 낳았으면서도 잠시라도 딸들을 못 보면 삼추(三秋)나 지난 듯이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먼저 딸들을 보며 애련해하였다.⁴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허씨가 아들 삼 형제를 낳을 세월 동안에는 장화, 홍련과 허씨와의 불화나 갈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허씨가 삼 형제를 낳기까지 최소한 3년의 세월이 흘렀을 터인데, 그간 허씨와 장화 형제간의 불화가 없었다는 것은 장화 형제와 허씨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가 장화 형제의 여성으로서 성숙에 있지 않았을 까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즉, 허씨의 입장에서, 혼기가 찬 성숙한 딸들을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대양 가까이 보살피려는 남편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앞둔 나이에 이성 부모와 과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딸들을 갈라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허씨는 장화의 정절을 훼손할 계락을 꾸미는데, 그 계락은 쥐를 활용해 실현된다.⁴⁴⁾ 이렇게 처녀의 정절을 모해하는 모티브는 <손 없는 색시>

43) “미양 녀으로 더부러 강부인을 싱각하며 일시라도 낭을 못보면 삼추갓치 너겨 나갔다가 드려오면 문져 낭의 방의 드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녀 왈 너의 심기의 이셔 어미 그리워흐를 노뵈 미양 슬허호노라”(579-580면)

44) “제 조식 장치를 불녀 큰 쥐를 잡으오라 호여 가마니 퇴호여 피를 바르고 낙티호 형상을 띠드려 장화 자는 방의 드려가 이불 밋히 녀코 나와 좌슈를 기다려 뵈려 호더니”(580면) 어둡고 더러운 구석에 사는 귀는 ‘쥐’는 무의식적으로 남근을 연상시키며, 성적 관심과 성

설화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정절 관념을 중시했던 문화적 토양에서 신화가 변형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⁴⁵⁾ 그러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딸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아버지를 격분하게 하는 사건은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녀가 낙태를 했다’는 사실이 가문에 욕이 될까 염려하여 장화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딸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여 다른 가능성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화도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한 마디 원정조차 하지 않고 자살을 결행하였는데, 이는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의 낙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를 십분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화의 정절 모해는 아버지와 딸의 과도한 애정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통과제의의 서사로 <장화홍련전>을 이해할 때, 그 완성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이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결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에 이르기 전에 장화, 홍련은 부모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화는 누명을 쓰고 죽었으며, 홍련도 장화를 따라 자살을 하였다. 이미 죽어버린 이들의 성숙은 바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죽음을 통해 성숙한 이들은 원혼이 되어 부사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알리고, 계모에 대한 징치를 청한다. 이러한 면모는 “나지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망모를 싱각하며 형제 서로 손을 잡아 장장 하일과 긴긴 추야를 장우단탄로 지네”(582면)는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귀신이 되어 나타난 홍련이 부사 앞에서 사태의 전말을 고할 때, 허씨가 물욕 때문에

숙을 상징한다. (이인경, 앞의 논문, 183-184면.) 쥐와 관련된 속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부영은 “진통을 앓을 때 쥐구멍을 막으면 해롭다.”, “게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뱀이 나온다.” 등의 속담을 사례로 쥐가 남근을 상징함을 밝혔다.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8, 68면.)

45) 이인경, 앞의 논문, 169면.

자신들을 없애려 하였다는 내용⁴⁶⁾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할 만큼 귀신이 된 이들의 시각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준다.

<장화홍련전> 군(群)의 소설의 이본을 재생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⁴⁷⁾ 이중 재생담이 있는 것은 민담의 문법이 가장 잘 적용된 것으로서 통과제의를의 완성을 잘 설명해준다. <장화홍련전>의 이본군에서 재생담은 두 가지 형태로 실현되는데, 하나는 자암본에서처럼 장화, 홍련이 다시 아버지의 쌍둥이 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른 쌍둥이 형제와 결합하게 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들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이들의 원한을 풀어준 부사를 공동의 배우자로 삼는 것이다.⁴⁸⁾ 이렇게 재생담이 있는 이본들은 아버지가 아닌 배우자를 취하는 것으로 통과제의를을 완성하고 있는데 두 이형태들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딸들이 다시 살아나 부사와 맺어지는 경우와 달리, 자암본의 경우는 아버지와 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평범한 부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암본은 아버지가 지나치게 딸들을 사랑했던 과오를 바로잡고서 딸들에게 새 배우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근친간의 과도한 애정이 극복되고 난 후, 행복이 찾아올 것임을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장화홍련전>을 이해하였을 때, 이 소설은 과도한 근친애의 관계에 놓여있던 아버지와 딸이 계모의 음모(혹은 도움)으로 인해 근친애적 관계가 단절되는 시련을 겪은 후, 아버지의 참회와 딸의 정신적 성숙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심층의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소설은 이성 부모와 지나치게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

46) “소녀의 몸이 원혼이 되어 이렇듯 혹은 다른 연괴 아니오라 이미 본디 조업이 업습고 어미 지름이 만스와 노비 천여귀오 견답이 천여석직이오 기외 금은보화는 거지두량이라 소녀 형제 출가호으면 괴물을 다 가질가 호여 소녀 형제를 죽이고 괴물을 탈취호여 제 주식을 주고져 호여 주사이탁호여 부디 희홀 뜻을 두었는지라”(584면)

47) 김재용, 앞의 책, 92면.

48) 가람본 계열의 이본에서는 이러한 결말을 취한다.

적인 운명을 개척하여 행복을 찾는 통과제의의 서사가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소설은 부모가 자식들이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끔 자식들과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갖고, 자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4. <장화, 홍련>의 경우

: 오이디푸스적 문제의 고착으로 인한 불행

영화 <장화, 홍련>은 실제로 벌어진 일과 등장인물의 환상이 복잡하게 얽히며, 사건이 비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영화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외딴 집에 수미(임수정 분)과 수연(문근영 분) 자매가 아버지(김갑수 분)와 함께 도착한다. 오랜 만에 집에 돌아온 자매들은 집 근처 저수지로 뛰어가 물에 발을 적시며 즐거워한다. 자매가 집에 들어가자 계모인 은주(염정아 분)는 그들을 맞아주지만, 자매는 그녀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시한다. 자매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수연은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왔다 나가는 기척을 느끼고, 수미는 목을 매고 죽은 엄마의 형상을 한 귀신을 본다. 그 가운데 두 자매와 은주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급기야는 은주가 수연을 큰 자루에 넣어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외출 후 돌아온 수미는 수연의 방 장롱에서 피 묻은 자루를 발견한 후, 은주와 싸우다가 은주가 내리 친 석고상에 맞아 정신을 잃는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수연의 환상으로 영화에서 재현하는 대부분의 내용에 해당한다.

영화의 끝부분에 자신을 은주라고 믿고 있는 수연과 실제 은주가 맞대면하면서부터 이 가족에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 재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집에는 원래 엄마, 아빠, 수연과 수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의 병이 깊어지자 약사였던 아버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은주를 집에 데려와 엄마를 보살피게 하였다.⁴⁹⁾ 은주는 자기 동생 부부를 그 집으로 초대하는 등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데, 이런 은주에 대해 수미와 수연은 극도의 적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은주가 자기 동생 부부를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날, 수미는 식사를 하면서 은주와 말다툼을 하며 일어서고, 은주는 수연의 숟가락마저 빼앗는다. 수연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함께 울다가 잠이 든다. 그 사이 어머니는 수연의 장롱 속에서 목을 매어 죽고, 자고 일어난 수연은 장롱 속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흔들며 울다가 장롱이 쓰러져 그 밑에 깔린다. 이 소리를 듣고 올라온 은주는 도움을 청하러 가다가 수미를 만나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을 지체한다. 수미는 나가봐야 한다면서 떠나고, 은주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 그 사이 언니를 찾던 수연은 죽게 된다. 그 후, 수미는 정신병으로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와 다시 집으로 왔으나, 그 집에서 수미는 이미 죽은 수연의 환영과 함께 살며, 자신을 은주로 여기는 생활을 한다. 집에 온 이후로 수미의 내적 혼란은 점점 심해져 자해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수미의 아버지는 은주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후 수미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의미를 결집시켜주는 중심으로 설정하였을 때⁵⁰⁾, 영화의 서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⁵¹⁾ 수연과 수미의 어머니는 오랜 동안 아파서 엄마 노릇이나 아내 노릇을 하지 못했다. 장녀인 수

49) 이 부분의 서사 내용은 등장인물이 넘기는 몇 장의 사진 이미지들로 재구성한 것이다.

50) 이러한 표현은 그레마스의 ‘분류소(classème)’를 염두에 두고 썼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분류해주는 상위의 의미인 분류소가 텍스트 내에 회귀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다. (A. J. 그레마스 & J. 꾸르페, 『기호학 입문: 방법론과 적용』(오원교 역), 신아사, 1992, 81면.) 이를테면, <춘향전>에서 ‘기생인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은 분류소들로서 각각 다른 주제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근친간의 과도한 애정’은 영화 <장화, 홍련>의 주제적 의미를 밝혀주는 분류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51) 이러한 이해는 영화에서 재현되는 서사 내용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거나 생략된 장면을 추론적으로 채워넣은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이 영화를 근친애에 관한 것으로 읽어낸 수용자들이 쓴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미는 수연을 보살피고, 아버지를 그 아내처럼 사랑해왔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정상적인 부녀답지 않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수미에게 과시라도 하듯이 은주를 집에 데리고 나타난다. 은주는 그 이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아내 노릇을 하였다. 그런 은주에 대해 수미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은주가 자기 동생내 부부를 초대한 어느 날, 식탁 앞에서 수미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폭로하고 수연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은주는 사회적 금기를 범하고 있는 이 집안 식구들에 대해 혐오하며 밥을 먹던 수연의 숟가락을 빼앗는다. 수연도 자신이 그 죄에 관련되어 있는 듯 순순히 은주의 말을 따르며, 자기의 방으로 간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수미와 남편의 관계가 드러난 것을 안 어머니는 수연의 방으로 가서 약을 먹고 자살하고, 수연마저 죽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수미는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으나, 집에 오자 수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수미는 그 집에 전처럼 수연, 은주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수연의 환영을 보고, 은주를 스스로 연기한다. 은주가 된 수미는, 아버지 곁에 눕고, 아버지의 속옷을 챙겨주는 또 다른 자기(수미)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또 수미는 어머니가 죽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 죽은 어머니가 무서운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꿈을 꾸며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수미는 실제 은주를 대면하고, 자신이 은주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해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의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 과연 위와 같은 해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놓인 인물은 수미와 아버지이다. 그들의 관계 속에는 계모인 은주가 있으며, 수미는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은주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수미와 은주의 질투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은주는 무현의 속옷을 챙겨 내려오다가 수미가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무현의 속옷을 발견한다. 은주는 그 속옷을 쓰레기통에 처넣어 버린다. 그리고선 수미에게, “아빠 내의, 네가 갖다 놓은 거니? 그런 건 내가 해도 돼. 내 일인 것 같아.”라고 말한다. 또 수미는 악

몸을 끈 후, 아버지가 잠든 거실로 와서 무현의 이불을 올려주고, 무현의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이 때 은주가 다가와 수미를 경계하듯, “아빠 주무시니까 깨우지 마”라고 한다. 무현을 사이에 두고 직접 두 인물이 부딪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화들은 은주와 수미가 서로를 질투하며 미워하는 연적(戀敵) 관계에 놓여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은주 역할을 하는 것도 수미이다. 그러니까 수미는 자신의 다른 인격을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왜 수미가 은주를 자신의 또 다른 인격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곁에서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는 새엄마인 은주의 역할을 선망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수미는 은주가 되어 아버지를 위해 화장을 하고, 슬립 차림으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은주의 역할을 자아로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왜 수미는 아버지와 정상적인 부녀 관계가 아닌 남녀 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친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란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녀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로 전화된 계기로 아버지와 수미의 근친상간적인 행위를 상정할 수 있다.

수미와 수미의 아버지인 무현 간에 근친상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할 때, 수미가 그것에 동의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것은 부모에 의한 아동의 ‘성학대’라고 할 수 있다. 친부에 의해 성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생존전략으로 취하는 대응 기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과 ‘해리(解離)’가 있다고 한다. 부정은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별 뜻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도 나를 사랑하니까.’라고 믿는 현상을 말한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의 생존 전략으로서 해리는 ‘난 여기 없어. 이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야. 나는 떠나고 없어. 이 일이 끝날 때 난 돌아올꺼야’라는 자기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로 성학대 아동은 학대가 일어나는 동안 자신은 몸이 떠나고 없는 상태에서 천장이나 창문턱에서 학대를 바라보는 자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또 성학대 피해자의 대인관계의 특성으로 공격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심의 형태로 표출된다.⁵²⁾

수미의 증상을 성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이는 행태로 미루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수미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수미는 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듬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날 건들지마!”라고 할 정도로 적대적이다. 만약 수미가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정’이란 대응 기제에 의해 수미는 아버지를 이성으로 여기며 사랑하면서도, 아버지에 의한 성학대가 사회적 금기를 깨는 ‘더러운 죄’이기에 아버지를 혐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미의 대사 중에 ‘더러움’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는 사실⁵³⁾도 수미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륜이며, 그에 대해 본인도 죄의식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미의 죄의식은, 수미를 괴롭히는 죽은 어머니의 귀신으로 영화적 형상을 취하기도 한다. 수미가 어머니에 대해 죄의식이 없었다면 죽은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일 뿐, 어머니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수미의 태도는 어머니를 동성의 경쟁자로 여기는 성학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⁵⁴⁾ 그리고 수미가 다중인격 장애(multiple-personality disorder)라는 정신분열을 겪는 것도 성학대 상황에서 일어났던 해리가 일상적으로 확장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⁵⁵⁾

52) 채규만, 『성피해심리치료』, 학지사, 2000, 253-260면 참조.

53)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더러움’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수미는 아버지를 더럽게 여기는데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빠가 불러놓은 이 모든 더러운 일 아빠가 책임져. 더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전화나 받아.” 수미가 은주가 되어 말한 대사 중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 참고 살아야해. 내가 지금 너희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이란 말도 더러움과 관련된다.

54)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년 후에 아빠라고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아빠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빠도 나를 딸로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보기 때문에 성폭행했다고 생각해요....엄마에게 미안한 점은 아빠가 나를 여자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걸 엄마가 알면 아빠도 남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어요.”(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2, 41면 상담자료 재인용)

55) 물론 이렇게 성학대 아동의 심리에 따라 영화의 등장인물인 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근친애에 집착한 과잉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영화의 DVD에 수록되어 있는 정신과 의사(김정일은 아버지와 수미가 근친애적인 관계에 놓여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자아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어머니의 자살과 동생의 사고사)을

위와 같은 이해는 영화 밖의 서사 내용으로 아버지와 수미 사이에 근친상간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화에는 수미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계모에 대한 질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성 부모를 좋아하는 심리적 경향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등으로 명명된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수미의 문제도 그리 특수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수미가 문제적인 인물이 된 이유는 유아기에나 갖고 있을 법한 동성 부모에 대한 근친애가 청년기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병약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고, 친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계모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여야만 했던 수미의 특수한 상황이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그에 못지않은 과도한 증오를 발생시킨 것이다.

‘거세 공포’로 인하여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하며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는 인간이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수미는 이 삶의 과업을 적절한 시기에 완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미의 아버지도 수미가 자신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도록 처신하지 못했다. 이 둘의 관계는 무현과 수현이 대화를 나누는 다음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 무현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수미에게 다가가 “수미야, 니가 나한테 많이 화나 있는 거 알아. 내가 나쁜 아빠라는 것도 알고.”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수미는 “나쁜 아빠조차 안 되잖아.”라고 쏘아붙인다. 무현은 이에 대한 대꾸 없이 “살살한데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린다. 이렇게 수미는 무현을 아버지로도, 나쁜 아버지로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며, 수미의 그런 태도에 대해 무현은 나쁜 아빠조차 되지 못함을 인정하듯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수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무현은 자신에 대

접했을 때, 수미처럼 귀신을 보거나 다중 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See the Movie with Psychiatrist’, <장화, 홍련> DVD)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의사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하나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해석의 제시가 교육적으로도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이 연구에서 ‘근친상간을 염두에 둔 이 연구의 해석은 하나의 해석가능성일 뿐, 그것이 영화의 유일한 진실이나,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수미의 근친애적인 집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 이 영화에서 가족 공동체는 와해되고, 개인의 성장은 정지된 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장화홍련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갖는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오이디푸스적인 문제가 환상적으로 변형되어, 계모를 실컷 미워하면서 아버지와 근친애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당한 일로 여기게끔 그려졌다. 계모는 착한 딸과 어진 아버지 사이를 가로 막는 악한 존재로서 결국에는 징치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장화, 홍련>은 이러한 환상을 걷어내고 비극적인 현실을 대면하게 한다. 계모는 결국 자기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음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화와 홍련은 언젠가는 극복될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마술적으로 해결하고, 독자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수미는 사춘기에 이르러서도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적인 문제를 안고서 정신병원에 갇혀야만 하였다.

5. 결론: 같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응답

영화 <장화, 홍련>은 가족 관계에서 오이디푸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될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동의 심리치료적인 효용을 지니는 민담의 문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담의 ‘행복한 결말’은 아동이 직면한 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그리고 계모가 등장하는 민담은 친어머니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계모에게 투영시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고서도 마음껏 계모를 미워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영화는 <장화홍련전>과는 달리 ‘행복한 결말’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며, 계모에 대한 증오마저도 결국 자신의 죄의식과 관련된 것일 뿐이라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계모가 등장하는 옛이야기와 이 영화는 같은 화제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둘은 공통적으로 ‘근친간의 과도한 애정’을 화제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위안과 격려’, ‘공포와 협박’으로 서로 다르다. 악독한 계모가 통쾌하게 징치되며 구박 받던 딸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결국 멋진 왕자님과 혼인하는 민담은 지금 닦친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며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행복한 삶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환상적 변형을 통해 가르쳐준다. 한편,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관습을 충실히 따르는 <장화, 홍련>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사춘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 가족 공동체는 와해되고, 개인은 불행해질 것임을 공포스럽게 경고하고 있다.⁵⁶⁾ 이렇게 볼 때, 영화 <장화, 홍련>은 기존의 <장화홍련전>과는 거리가 먼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핵심적 주제에 접근하는 현대적 변용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연구는 두 텍스트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인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과 갈등’이란 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응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과거의 문학 작품과 현대 독자 사이의 물음과 응답이라는 대화적 구도를 설정하고 있는 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⁵⁷⁾ 고전의 현대적 변용물은 고전 텍스트와의 대화의 산물이자 과거 텍스트가 전승되어 온 전통이라는 지평(horizon)과 개작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지평이 융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전문학이 영상물로 변용된 텍스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의 텍스트가 몰두하였던 삶의 문제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원텍스트가 가진 주제를 어떻게 수용하여 과거 텍스트와 어떤 의미 연관을 형성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영화 <장화, 홍련>은 <장화홍련전>의

56) 특히 이 영화는 공포 영화의 장르 관습을 충실히 따르기에 일상의 진실을 공포스럽게 대면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57) 해석학적 이해의 대화적 구조는 G. 원키, 『가다머』(이한우 역, 민음사, 1999, 179-190면)와 R. E. 팔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1988, 288~293면)를 참조할 것.

새로운 의미 영역을 발견하게 해주고, 해석적 지평을 확장시켜 주는 해석학적 인 대화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영화나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통해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은 인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가 유적 인간에 대한 이해이자 자기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영화를 통해 열린 해석적 지평은 인간을 이해하고 개체적인 자기를 이해하는 인문학적 효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바람은 앞으로도 고전문학과 관련 있는 많은 영화들이 나와,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자극하고 해석적인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 시대와 고전문학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고전문학이 한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로 자리 잡고, 특정한 문화는 고전에 비추어 비로소 자신의 역사성을 획득할 수 있을 때, 고전문학을 교육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덧붙여, 영화를 교육 자료로 삼는 매체교육에서도 인문학적 접근의 효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을 한다고 할 때,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널리 실행되고 있는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단지 소설의 서사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혹은 소설과 영화의 매체 특성을 알게 하기 위해 매체를 국어 교육에 끌어들이는 것만은 아니다.⁵⁸⁾ 그보다는 오히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하듯이 영상물을 ‘단지 보는(see)’ 것만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고(look)’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매체교육은 범교과적인 영역으로서 교과별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국어교육은 바로

58) 소설과 영화를 함께 제시할 경우, 소설의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 이때 교육목표는 소설의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나,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영상물이 아닌 다른 교육 자료도 가능할 것이다. 또 소설이 영상으로 변용될 때, 어떤 기호적 변천을 겪는지 알기 위해서 영상물을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은 소설이라는 문자 매체의 특수한 양식의 특성이나 영상 매체의 기호론적 특성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각각의 매체가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하는 교육적 효용이 있지만 학습자들이 소설이나 영화의 의미에 대해 천착하게 하기는 힘든 한계가 있다.

여러 매체로 제작된 산물의 의미를 읽어내는 독법과 자기화하는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를 점한다. 왜냐하면 국어교육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쳐 다듬어온 가장 정교한 매체인 언어를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어교육은 언어적 표상물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듯이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도 문학 작품처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문화적 문식성, 오이디푸스적 문제, 고전의 현대화, 해석학적 대화, 지평 융합

참고문헌

자료

- <薔花紅蓮傳> (경판 18장본: 자암신간), 1899년간,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장화, 홍련> (메트로 DVD), 2003.
-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1』,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4.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김혜리, 「<장화, 홍련>의 공포, 김지운 vs 윤종찬」, 『시네21』, 2003.6.20.
- 노영근,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가족탐색’ 연구」,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 2000.
-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16』, 국어교육학회, 2003.
-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2.
- 신규원, 「계모형 소설연구」, 영남대 석사 학위논문, 1981.
- 신영주, 「조선후기 송사소설 연구」, 상명대 박사 학위논문, 1996.
- 심영섭, 「수미의 내면 대신 다리에 탐닉하는 <장화, 홍련>」, 『시네 21』, 2003.7.10.
- 안 환,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유운성, 「감독의 장르적 상상력, <장화, 홍련>」, 『시네 21』, 2003.6.10.
-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8.
- _____, 「<장화홍련전> 연구사」(우쾌제 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8.
-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 이원수, 「가정소설 작중 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인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 『구비문학연구 13』,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 이헌홍, 「<장화홍련전>」(『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 이효인, 「<장화, 홍련> 전래동화화는 아무 상관 없네…반칙이다」, 『시네 21』,

2003.7.3.

전성탁,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75.

정승훈, 「공포의 형이화학을 넘진 못했지만 눈을 뗄 수 없는 <장화, 홍련>」, 『시네 21』, 2003.7.3.

정운채, 「<심청전>의 구조적 특성과 심청의 효성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 이상의 외,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정재형, 「상상력, 환상, 기억 그리고 일탈의 공간정치」, 『문화예술』, 2003.8.

정혜심, 「계모형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논문, 1989.

조현설, 「고소설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 본 고소설 연구의 과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_____,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채규만, 『성피해심리치료』, 학지사, 2000.

황혜진,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채만식의 <沈봉사> 연구」, 『고전문학과교육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B.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2』, 김옥순, 주옥 역, 시공주니어, 1998.

A. J. 그레마스 & J. 꾸르페, 『『기호학 입문: 방법론과 적용』(오원교 역)』, 신아사, 1992

R. E. 팔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1988.

S. 프로이트, 「남자들의 대상 선택 중 특이한 한 유형」,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4.

G. 원키, 『가다며』, 이한우 역, 민음사, 1999.

Purves, A. C., Papa, L., Jordan, S.(eds.),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 vol 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4.

Williams, R., *The Long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본 논문은 2004. 12. 10 투고 접수된 논문으로 2005. 1. 23 심사를 완료하고 2005. 1. 26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를 확정함.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classic novel and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it for the cultural literacy education

- Cases of the classic novel, <Janghwa-Hongryeon Jeon> and the movie, <Janghwa, Hongryeon>(2003)-

Hwang, Hye-jin

This study is about 'Oedipus problems' in the classic novel, <Janghwa-Hongryeon Jeon> and the movie, <Janghwa, Hongryeon>(2003). Universal issues like 'Oedipus problems' can mediate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present culture. Although, the two texts deal with the same topic, two texts bring different response to the topic.

In the point of view of Oedipus Problems, <Janghwa-Hongryeon Jeon> has meanings as follows: the father and daughters who are very close each other in emotional life regain normal father-daughter relationship by the ordeal which was brought out by the stepmother. The novel is based on fairy tales, and has the optimistic attitude to 'Oedipus Problems'. As to say, that Oedipus problems will be cleared easily in someday, and every children can find their happiness like the hero or the heroine in the narrative.

The other way, the movie doesn't give any belief or hope of solving problems. Preferably, it reveals the truth that the stepmother is nothing but an illusion which was made by the own sin-consciousness. The movie tells us that when 'Oedipus problems' are not overcome successfully, the family will collapse and the child will not grow anymore. This is the fusion of horizons which was produced by the

hermeneutical conversation.

<key word> Cultural literacy, Oedipus Problems, Transformation of classic novel, hermeneutical conversation, fusion of horizons.

